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적 역사 이해*

정 윤 승 (충남대)

【한글요약】

본 논문은 화이트헤드의 역사철학에 대한 이해를, 역사주의 및 반역사주의와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의 역사관이 창조적인 모험의 역사주의 즉 구성적 포스트모니즘 역사주의라고 이해하였다. 화이트헤드는 과정의 원리에 해당하는 작용인과 유한성의 원리에 해당하는 목적인을 새로운 개별성의 원리를 통해 구성한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공공성에서 사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현실태의 목적인이라고 할 수 있고, 사사성에서 공공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현실태의 작용인이라고 할 수 있다. 화이트헤드 철학의 이러한 특징은 '관계'와 '가치' 혹은 '과정'과 '강도'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화이트헤드의 미적 가치의 방식은 "같음의 과잉"과 "다름의 과잉"이라는 근대와 포스트모더니즘을 조화하는 형식을 취한다. 동일성의 과잉에 대한 거부가 포스트모더니즘을 통해서 차이의 과잉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양자를 적절하게 조화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적 화두이다. 화이트헤드는 자신의 새로운 형이상학에서 "관계적 힘"으로의 작용인과 "미적 가치"의 목적인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개체성을 통해 역사를 조망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어] 화이트헤드, 과정 철학적 역사관, 역사주의, 반역사주의.

---

* 본 논문은 2013년 한국역사철학회 동계학술대회(충남대학교 인문대학 교수회의실, 2013. 12. 13.)에서 발표한 것임.

1. 화이트헤드 역사관 이해의 전제

본 논문은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적 역사관, 즉 화이트헤드의 역사 철학을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알려진 화이트헤드의 역사철학에 관한 논문은 소수였으며, 그마저도 그의 역사 철학관을 밝히기보다는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적 관점에서 여타의 철학사상(관점주의 등)과 비교하거나 그들을 비판하는 형식이었다.[1] 즉 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부터 했던 것이라 하겠다.

물론 국외에서는 1980년대 이후, 그의 역사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이 역시 그의 역사철학을, 반(反)역사주의와 역사주의로 양분하는 방향의 논쟁에 그치고 마는 아쉬움을 남겼다(알랭[2]과 루카스[3]의 논쟁 참조). 이러한 이유로, 화이트헤드

1) 화이트헤드 역사관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 국내 논문은 2편(이현휘, 「미국 혁명의 종교적 기원(I)」, 『화이트헤드연구』 11집, 한국화이트헤드학회, 2005.; 주재완, 「과정철학은 관점주의인가?」, 『화이트헤드연구』 16집, 한국화이트헤드학회, 2008.)이 있다.

2) 화이트헤드의 역사철학을 반역사주의의 특징을 갖는다고 분석하는 입장(Allan, George. "The 'Conning' of history." in *Hegel and Whitehead: Contemporary Perspectives on Systematic Philosophy*, ed.)과 화이트헤드의 역사철학을 상대주의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George R. Lucas, Jr. gelbany: *The Rehabilitation of Whitehead*.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6.)이 그것이다.

3) Crosby, Donald A. "Two Perspectives on Metaphysical Perspectivism: Nietzsche and Whitehead." in *The Pluralist* 2, no. 3. 2007. pp.57-76.; Rescher, Nicholas. "Trapped Within History?: A Process Philosophical Refutation of Historicist Relativism" in *Process Studies 29, no. 1*. 2000. pp.66-76.; Bracken·Joseph S. J. "Space and Time from a Neo-Whiteheadian

의 역사관(역사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대의 논쟁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주의와 반(反)역사주의는 각각 역사개성주의와 역사법칙주의로 대표된다.[4] 전통적인 역사주의를 역사개성주의-상대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많은-라고 한다. 역사를 개성과 발전 및 연관성의 원리에 의해서 설명하고자 하여, 보편적인 것까지도 개체(개인, 국가, 제도, 문화, 시대, 사건 등을 단위로 함)가 역사적 단위가 되는 모든 개별적 사상을 가리킨다. 참고로 이러한 문제를 수정 보완하는 입장이 포퍼의 역사주의 즉 역사법칙주의이다.[5]

역사법칙주의는 역사를 거시적 역사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더불어 이러한 역사관은 반(反)자연주의 및 친(親)자연주의적 사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반자연주의적 역사법칙주의는 '사회유기체론'을, 그리고 친자연주의적 역사법칙주의는 '역사 속에서의 추세'를 하나의 법칙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개성주의는 자연과학의 방법론에 대립한다고 할 수 있다. 자연과학의 법칙-정립적 방법론은 모든 사물의 보편적인 속성과 규칙성을 하나의 법칙으로서 이해한다. 그러므로 자연을 인식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요소를 근거로 하여 보편적 개념을 구성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의 유일한 대상에만 귀속시킬 수 있는 성질은 비본질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특히 실증주의자들은 한번 정당화된

Perspective" in *Zygon 42 no. 1*. 2007. pp.41-7.

4) 역사주의(歷史主義, Historismus)는 역사상대주의의 하나로서 19세기 말부터 인문관계 제반 과학에서 쓰기 시작한 새로운 개념으로, 모든 사상(事象)을 역사적 생성과정으로 보고 그 가치 및 진리도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다고 주장한 입장이다. 일반적으로는 19세기 독일 역사학파의 역사적인 것에 대한 견해를 가리키기도 한다.

5) 이한구, 『역사주의와 반역사주의』, 철학과 현실사, 2010, p.28.

지식은 변화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자연과학의 관점에서는 역사성이란 존재할 수 없다. 역사개성주의의 본질적인 측면은 과학의 역사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이론이다.

문제는 상대주의가 본질적으로 닫힌 체계라는 점이다. 이것은 통약 불가능하며, 그 자체로 완결되어 있는 체계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체계는 자신의 경계를 넘어설 수 없다고 주장하는 유아론(Solipsism)과 유사하다. 역사개성주의는 본질적으로 역사적 상관주의나 상대주의적 원리로 흐를 수 있다는 한계가 안고 있다.

이와 같은 역사관의 상대화는 대부분 인간의 관념적 상대성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대성은 그 대상에 대한 보다 기초적인 설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즉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상대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상대주의적 관점은 우리의 역사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기는 하지만, 사실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어떤 개념을 역사화시키는 것은 그것을 구체적인 사물로서 취급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잘못 놓인 구체성의 오류[6]를 범하는 것이다.

그런데 포퍼가 제시하는 역사법칙주의는 이와 같은 상대주의적 한계를 넘기 위해, 반자연주의 이론과 친자연주의 이론을 결합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반자연주의 이론은 역사의 새로움을 설명하기 위해 각 단계나 시대의 발전을 고찰함에 있어서 반자연주의 이론과 친자연주의 이론이 본질적으로 각각 다르다는 점에 주목한다. 더구나 사회는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유

6) 특히 실증주의자들은 한번 정당화된 지식은 변화될 수 없다고 본다. 화이트헤드는 이러한 관점에 대해 '독단론적인 최종성의 오류'('the fallacy of dogmatic finality')에 빠지는 것이라고 비판한다(A. N. Whitehead · Lucien Price, *Dialogues of Alfred North Whitehead*, p.45.)

기적 전체로서 존재한다고 본다. 이러한 유기적 전체로서의 사회는 집단정신이 존재한다는 이론 즉 전체론의 원리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반자연주의 이론에서는 사회과학에서의 일반화란 단지 단일한 역사적 시기 안에서만 가능할 뿐 모든 역사적 시기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 또한 사회과학에서 의미있는 인위적 실험은 불가능하며, 사회과학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측은 그 성질상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다.

결국 포퍼의 역사법칙주의는 사회적 전체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회 전체는 개체주의적 방법으로는 파악될 수 없으며, 오직 본질주의적 방법에 의해서만 파악 가능하다는 것이 한계이다. 또한 이 사회 전체의 발전을 규정하는 역사의 발전 법칙이 존재하며, 이것에 의해 인류 미래에 대한 역사적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러한 법칙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더불어 이 역사 법칙에 따르는 활동만을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인간 경험과는 부합되지 않는 추상적인 법칙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즉 포퍼의 역사법칙주의는 유기적, 전체론적 사고라는 면에서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과 유사한 면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내적 법칙에 한정된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닫힌 체계일 수밖에 없으며, 더구나 합리적 비판성이라는 측면은 여전히 불가지론, 회의론적 입장에서 비판될 수 있다.

2. 과정 철학적 역사 이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역사개성주의는 상대주의의 한계를,

역사법칙주의는 닫힌 체계의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미 주지하다시피, 인간이 행하는 모든 사건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역사적인 과정은 우리들의 행위를 감싸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간의 정신적, 물질적 행위)은 모두 역사의 부분이다. 근본적으로 역사성이란 인식론적으로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인간이 갖는 지식은 한갓 의견이거나 해석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이나 사유는 역사에 묶여 있다. 그러나 이것이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에 변화하지 않는 안정성의 패턴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과정에 대한 이러한 관념이 초시간적인 불변성이다. 과정의 표현은 어쩔 수 없이 공간적이며 구체적이지만, 그러한 과정 자체는 무시간적이고 보편적이다. 반대로 서로 다른 과정일지라도 동일한 보편적인 결과를 산출해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추상의 산물 역시 다양한 형태로 상대화된 과정의 기원이라는 제약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7)]

우리가 여기서 초역사적인(범시간적인) 것과 비시간적인 것을 구분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연의 법칙은 분명 범시간적이다. 그것들은 항상 그리고 모든 장소에 매어있다. 즉 인간에 의한 인지 과정들은 시공간적이지만, 그 사물들이 내포하고 있는 대상들은 추상적인 것이다. 그런데 어떤 대상들은 시간에는 매이지만 공간에는 매이지 않기도 한다. 정보라는 것도 이와 유사하다.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가는 정보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정보 그 자체는 그렇지 않은 추상인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람들간의 소통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경험에 의한 구체화(concreta)와 관념에 의한 추상화는

7) N. Rescher, “Trapped Within History?: A Process Philosophical Refutation of Historicist Relativism” in *Process Studies 29, no. 1*. 2000. pp.66~76.

어떻게 소통이 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이것은 바로 지성의 본성에 의해서 가능하다. 우리의 신체는 분명히 역사 속에 묶여 있다. 그러나 지성적인 활동은 우리가 이러한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즉 현재의 경험적 행동은 현실적으로 과거의 행동을 되풀이할 수 없지만, 현재의 사고는 과거의 사고조차도 함축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실질적인 경험은 그것의 인과성과 근거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이다. 지성적인 작인들을 가지는 경험은 자연에서의 사건과 믿음을 위한 근거라는 두 가지 역할을 보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가 유기체적 역사철학의 근간이다.

2000년대 화이트헤드의 역사철학에 대한 연구는 주로 관점주의와 연관되어 있다. 특히 2000년대 초반에는 화이트헤드의 역동성의 철학 혹은 창조성의 철학이 자칫 상대성의 역사를 옹호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음을 지적해왔다, 그의 철학은 언제나 패턴의 안정성을 꾀하는 역사관이기 때문에, 결코 상대주의나 관점주의로 흐르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 철학적 입장에서의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화이트헤드가 자신의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해왔던 '창조성'과 '모험'의 역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창조성'의 역사

사실상 화이트헤드는, 인류에 관한 그리고 우주에 관한 보편관념의 역사가 있었으며, 미래에도 있을 수 있는 역사를 서술하고자 했다. 아울러 그는 새로운 시대가 제기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과정'이라는 기본개념에 입각한 사고형식을 전개하고 있다. 그는

지난 세기의 역사학파에서 굳게 믿고 있었던 이른바 '순수한 역사' 즉 어떠한 미적 편견도 없는, 어떠한 형이상학적 원리에도 의존하지 않는 역사라는 것은 공상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추측만으로 '객관적인 사실'이나 '순수한 역사'를 믿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화이트헤드의 사상은 인간이나 자연의 모든 사물에는 고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없으며, 모든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깊은 형이상학적 통찰을 전제로 한다. 그의 저서 『관념의 모험』은 인간으로 하여금 문명으로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완만한 추세 속에서 퇴보와 좌절을 거치는 관념의 역사적 모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야만 상태에서 문명으로 향해가는 인류의 완만한 상승운동을 묘사하면서, 그 상승운동의 추진력이 되고 있는 어떤 '관념'의 작용을 기술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관념의 역사는 일정한 보편적 연관성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특이성은 존재론적 원리와 범주적 제약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 모든 역사의 흐름은 내적 결정의 성격을 나타낸다. 이것이 존재론적 원리이다. 역사의 흐름은 단지 '주어져 있다(given)'는 성격을 가질 뿐이다. 그러므로 세계는 불완전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역사의 흐름은 내적으로는 결정되어 있지만, 외적으로는 자유롭기 때문에 결코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8] 이에 대한 입장을 다음의 인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비논리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났을 때 체계는 단순히 비논리성만을 노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충분성과 부정합성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된다. 한 체계의 범위 안에 어떤 명백한 경험의 요소

8) A. N.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Macmillan. 1978. p.46.

> 를 포함시키는 데 실패할 경우, 그 체계는 그 사실들을 대담하게 부인함으로써 그에 대처한다. 또한 한 철학 체계가 어떤 신선한 매력을 간직하고 있는 동안은 정합성이 결여되었더라도 이에 대하여 말하자면 사면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한 철학 체계가 정통성을 획득하여 권위를 가지고 교육되기에 이르면 그 체계는 한층 예리한 비판을 받게 된다. 사실들에 대한 거부와 부정합성이 더 이상 용인될 수 없게 될 때, 이에 대한 반작용이 시작된다.[9]

즉 역사의 흐름 역시, 화이트헤드의 용어를 빌자면 합생과정을 거친다. 이것은 질서에서 벗어나서 새로움을 전개하는 것이며, 그 이행과정은 끊임없이 유동하는 연속성에서 벗어나서 패턴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다.[10] 즉 화이트헤드는 역사를 포함한 모든 현실적 존재자들의 관계가 '창조성'(accidents)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며, 이것을 유기체 철학의 궁극자로 삼는다. 이 창조성은 일자와 다자를 결합하는 '접속'의 원리라고 볼 수 있다. 화이트헤드는 다자를 이접으로 보고, 일자를 연접으로 보며, 이들의 결합을 창조성을 통해서 설명한다.

다시 말해 창조성을 통하여 다자가 일자로 되는 공재(togetherness)는 다자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다. 이것은 이전의 다자들이 새로운 일자가 되는 것이다. 즉 창조성은 전혀 이질적인 새로운 일자를 구성하는 새로움의 원리를 구성하는 것이다. 창조성은 다자들이 일자로 되는 비대칭적인 결합의 원리이다. 창조성은 어떤 하나의 척도, 하나의 원리로 환원되지 않는 이질적인 것의 결합이며, 하나의 추

9) *Ibid*., p.54.

10) 서양 현대철학에서 새로움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입장은 베르그송주의 철학이며, 이와 달리 안정적인 형태를 강조하는 입장은 구조주의 철학이다. 이에 화이트헤드는 안정성과 새로움이 결합된 형태로 자신의 우주론을 전개하고자 했다.

가가 전체의 의미를 크게 다르게 만드는 원리이다. 우리는 자물쇠의 위치 하나만 바뀌어도 방이 감옥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궁극자의 범주를 우유성에 두는 것은 어떤 점에서 서양의 형이상학의 전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창조성은 이접적인 방식의 우주인 다자를, 연접적 방식의 우주인 하나의 현실적 계기로 만드는 궁극적 원리이다. 다자가 복합적인 통일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물의 본성에 속한다.[11]

또한 화이트헤드는『화이트헤드와의 대화』에서 관념의 초월성을 설명하면서 문학과 역사의 차이를 설명한다. 즉 그는 "문학은 어떤 의미로는 믿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지만, 인간의 경험은 이와는 달리 사실 모든 추측능력을 넘어서는 곳에서 전개된다. 그래서 사회문학은 인습적인 것인데 반해, 역사는 모든 상식적인 한계를 뛰어넘는다."[12]고 말한다. 즉 역사의 전개는 창조적, 창발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화이트헤드는 역사의 전개가 비록 창발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우발적인 혹은 우연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즉 역사적 사건들에 관한 이해는 반드시 그 사건의 배경 즉 여타의 당시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역사이해에 있어서 역사적 사건과 그 사건의 배경 즉 여타의 현실적 상황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 2차 세계대전에 대해 대학교수들이 쓴 글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다.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가 현실적인 활동 속

11) A. N.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Macmillan, New York, 1978, p.21.
12) 문창옥,『화이트헤드와의 대화』, p.40.

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즉 2차 세계대전은 1914년까지의 대공황과 영국, 프랑스의 갈등상황이 전제되어야 한다.[13]

화이트헤드는 결정론적 역사관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정태적 학문태도, 즉 어떤 것도 추가하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은 채, 근엄하게 학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수동적인 자세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한다.[14]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적 결정론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것 역시 큰 결함을 갖는 것으로 본다. 더구나 화이트헤드는 역사에 있어서의 원인과 우연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오백년이 넘는 르네상스 문화가 붕괴된 것은 어떤 한 가지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누적해서 현존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앞서의 모든 각각의 사건들은 결과에 속하는 것이다.[15]

이와 관련하여 화이트헤드는 원인과 우연의 관계를 설명한다. 그는 줄곧 존속해 온 것이라고 한다. 마치 우연인 것처럼 나타나는 것도 결국 일련의 인과 작용의 마지막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헤드는 관념의 모험의 생명주기에 관련하여, 관념의 '모험가들은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여 과거를 알고 역사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정성에 중심을 두는 사상은 위험하다. 인간의 생명력은 모험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16] 그는 기번과 투키디데스를 한 예로 들면서, 역사에 대한 올

13) *Iibd*., p.71.
14) *Ibid*., p.143.
15) *Ibid*., p.371.

바른 접근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사학자는 반쪽 진리에 관해 심하게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들 대다수는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에 대하여 마치 권위자인 양 쓰는 사람들 같다. 그들은 한 시대의 공식 기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그 진실한 의미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었던 정서적 분위기라든지, 사람들이 그 지배 하에서 생활했던 일반적 관념 속에 있었다는 것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의 예외가 기번과 투키디데스라고 말한다. 그들은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독특한 역사 기술을 했기 때문이다.[17]

또한 화이트헤드는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형식에 치우친 역사 해석을 경고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사 자체보다는 서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는 역사상의 관념적 혹은 사건적 충돌 자체 보다는 사건의 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 역사는 보다 서간을 통해 살펴져야 한다. 역사는 나날의 것들이다. 그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회학이다. 이것은 사상의 진보이기도 하다. 형식에 치우친 역사는 그 결과의 원인을 보여주지 못한다. 우리가 직면하는 역사상의 충돌은 그러한 과정의 최종 단계일 뿐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한 충돌을 일으킨 사고방식의 진행 과정이며 근원지이다.[18]

즉 역사에 관한 이해는 역사적 사건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에 이르는 창발적인 과정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는 것이

16) *Ibid*., p.450.
17) *Ibid*., p.486.
18) *Ibid*., p.606.

다.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적 역사관은 끊임없는 창조성의 결과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2) '관념적 모험'의 역사

화이트헤드는 역사를 지배하는 두 개의 힘을 맹목적인 충동(무분별한 힘)과 이상의 자각적 작용자(consious agency of ideas)[19]라고 말한다. 전자는 물질적인 측면이며 후자는 정신적인 측면이다. 이 두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없어서는 모험이란 결코 불가능하다.

이 두 개의 힘이 종합, 통일될 때 노출된 힘에 대한 설득의 승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때 관념의 모험이 작용해야 한다. 관념의 모험은 설득의 승리를 얻어낸 사회를 문명화하기 때문이다.

화이트헤드는 인류의 역사를 맹목적인 충동과 자각된 열망과의 치열한 대립 내지 협력의 역사로 보면서, 후자의 힘이 전자의 힘을 압도하는 상태를 가리켜, '문명의 진보'라고 부른다. 화이트헤드는 문명이란, 이러한 관념들의 조화로운 유기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화는 '관념의 모험'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즉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바로 '모험'인 것이다. 이러한 모험이야말로 문명의 진부함과 지루함, 정통주의로부터 구출하는 기회인 것이다. 모험을 하는 문명은 자유롭고, 활기차고, 창조적이다. 모험이 결여된 곳에 문학은 깊이를 잃고, 과학은 지엽말단에 사로잡히고, 예술은 보잘 것 없는 사소한 구별에 급급하고, 종교는 독단적인 도그마로 타락하고 만다.

화이트헤드는 이와 같이 인류의 역사를 추적하면서, 이러한 역사상의 모험을 설명할 수 있는 관념의 사변적 구도를 구축하고자 했

19) A. N. *Whitehead, Adventures of Ideas*. Cambridge Univ, 1933, p.21.

다. 그래서 그는 현대 역사관의 배후에 만연해 있는 실증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실증주의'는 학문의 작업을, 밖으로부터 관찰된 자료만을 처리함으로써 일반적인 기술방식을 창출하는 것에만 한정시키고 있다. 이러한 '실증주의'는 엄밀한 의미에서 '경험주의'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본래의 경험주의는 인간이 경험하는 풍부하고 살아있는 그대로를 살리는 우주론이어야 하는데, 경험주의는 개인의 느낌이나 정서마저도 객관화된 데이터로 전환함으로써 그 생기를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실증주의 과학이 놓치고 있었던 아름다움, 인간 동포 등의 관념을 인류를 끌어가는 이상(理想)으로 부활시킨다.

화이트헤드에게 있어 문명화된 사회는 진리, 아름다움, 예술, 모험, 평화의 성격으로 정의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들에 의해 질서지워진다는 것은 문명이라기보다는 문화에 더욱 가깝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된 인간의 경험은 과학적 지식, 예술 활동, 도덕적 행위, 종교적 경험 등과 같은 문화적 활동이 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적 활동은 결코 순응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과거의 연속이나 반복은 있지만 새로움의 창조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창조성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역사개성주의와 역사법칙주의가 만날 수 있다.

화이트헤드는 역사라는 개념 속에 과거는 물론 현재와 미래도 포함시킨다.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는 상호 연관 속에서만 해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20]

또한 화이트헤드는 19세기 후반의 역사주의(니부어, 랑케 등) 즉 엄정한 사료비판을 통해서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려 했던 시도

20) A. N. Whitehead. *Adventures of Ideas*. New York: Macmillan Company, 1933. p.46.

를 공상의 산물이라고 본다.[21]

> 관념의 역사는 우리 자신의 관념으로부터 도출된다는 것이다. 즉 우리 자신의 입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22]

관념의 역사는 오류의 역사이다. 그러나 그것은 온갖 오류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행위가 정화되어가는 역사이기도 하다. 바람직한 질서가 발전적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을 때면, 의식적으로 영입된 관념의 작용이 강화됨으로써 행위가 야만적인 것으로 퇴행하지 않도록 제외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플라톤의 다음과 같은 선언은 정당화된다.

> 문명적 질서를 갖는 세계의 창조는 힘에 대한 설득의 승리이다.[23]

과학은 법칙, 즉 자연의 법칙이라는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법칙의 개념은 상호간의 움직임이 항상 일정한 규칙들을 예증하는 사람들이 이 세계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 때의 규칙들이란 결코 반복하는 데 실패하는 법이 없는 반복을 분명하게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움직이는 사물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규칙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문제다. 더구나 법칙들은 환경의 산물이다. 또한 법칙들은 내적인 가치의 실현과 관련하여 중립적 위치에 있다. 즉 가능한 가치의 종류를 제약하기는 하지만 가치의 특수한 존재방식을 결정

---

21) *Ibid*., p.47.
22) *Iibd*., p.51.
23) *Iibd*., p.77.

하지는 않는 것이다.[24] 화이트헤드는 이 같은 현대의 자연과학 및 물리과학의 발전이 역사 이해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 물리과학의 영향을 받아, 역사의 임무는 현대로 올수록 사건들의 단순한 전후관계를 서술하는 일에 제한되어 왔다. 이와 같은 지식의 이상은 사태의 승리를 의미한다. 오늘날 인과관계라는 관념은 오직 경제적인 동기와 같은 물리적 자료들에 대한 진술에서만 그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25]

화이트헤드가 주장하는 사회집단 운명의 결정적 지배 요소는 네 가지이다. 첫째, 어떤 초월적 목표가 없으면 문명생활은 쾌락에 빠지게 되거나, 느낌의 강도가 시들어지면서 불모의 반복으로 서서히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법칙이다. 둘째, 의식주 등의 신체적 필수품의 공급에는 자연의 강제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셋째, 사람이 사람을 강제적으로 지배하는 데는 양의성이 있다. 지배란 자비이면서 치명적인 것이다. 넷째는 설득의 요소이다. 이 요소가 결정적으로 사회를 진보하게 하는 힘이다.[26]

법칙의 개념, 말하자면 어느 정도의 규칙성이나 지속성 또는 반복과 같은 개념은 기술, 방법론, 학문, 사변 등을 향하는 충동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이다. 사물의 본성에 있어서 어떤 유연성을 떠나서는 지식도 유용한 방법도 지적 목적도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혼란은 과거나 미래 또는 현재 주위에 있는 다른 혼란들과

---

24) *Iibd*., p.99.
25) A. N. Whitehead. *Modes of Thought*. New York: MacMillan Company, 1938. p.34.
26) *Iibd*., p.157.

비교되는데 필요한 토대조차 지니고 있지 못하다.[27]

자연의 법칙에 관한 학설은 주로 네 가지로 나눠진다. 즉 법칙을 내재하는 것으로 보는 학설, 법칙을 부과된 것으로 보는 학설, 법칙을 관찰된 계기의 질서로 간주하는 학설(법칙을 하나의 기술(記述)로 이해하는 학설) 그리고 법칙을 규약에 의한 해석이라고 보는 최근의 학설이 그것이다.

법칙을 내재하는 것으로 보는 학설은 자연의 질서란 모든 존재자를 구성하는 공동의 성격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것은 존재들 사이의 상호관계에도 그에 상응하는 동일성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패턴의 동일성이 곧 자연의 법칙이다. 그런데 이 학설은 절대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며, 다만 존재들 간의 상호의존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호관계성이 엄밀하기 보다는 통계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자연이 진화하고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면 법칙 역시 진화해야 하므로 고정된 영원한 법칙 자체도 포기되어야 한다.

부과된 법칙의 학설은 위에서 내적 관계를 중시한 것과는 달리 외적 관계를 중시한다. 즉 존재는 존재하기 위해서 자신 이외의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자연의 다른 요소와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 필요성이 부과되어 있을 뿐이다. 이 학설은 단순화된 자연개념을 끌어들임으로써 실체적 유물론과 결합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이신론적 입장은 궁극적 존재자인 신을 요청하게 된다.

단순한 기술로서의 법칙은 가장 단순한 형태이다. 즉 인간의 관찰을 통해 얻어진 직접지는 축적적이고 비교적인 것으로 관찰된 사물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해줄 뿐인 것이다. 이것이 19세기 실증주의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학문의 소극성을 일으키

27) *Iibd*., p.187.

며, 이성의 논제를 단순한 감각여건이나 동어반복으로 폄하하게 된다. 더구나 궁극적인 가치들 가운데 많은 것을 합리주의적 사고로부터 제외시키고 있다.[28]

> 유럽사상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치명적인 오해로 얼룩져 있다. 이것을 독단의 오류라고 명명해도 좋겠다. 이 오류는 현실세계에서 그것들이 예증되는 데 필요한 복잡한 연관관계를 충분히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산출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에 내재하는 것이다. 사실상 명백한 것으로 여겨지는 비교적 친숙한 관념들조차도 해결하기 어려운 모호성을 갖고 있다. 우리는 어떤 완전한 형이상학을 구성하게 될, 잘 정의된 일반성의 최종적 조절 같은 것을 산출하지 못한다. 다만 우리는 한정된 일반성을 갖춘, 다양한 부분적 체계를 산출할 수 있을 뿐이다.[29]

우리의 지식 즉 과학은 두 가지 경험 질서의 만남으로 형성된다. 그 하나는 특정한 관찰의 직접적이고도 즉각적인 식별에 의해서 구성된다. 또 하나는 우리가 우주를 일반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에 의해서 구성된다. 이들은 각각 관찰적 질서와 개념적 질서로 불린다. 유의할 점은 관찰적 질서는 항상 개념적 질서에 의해서 공급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관찰은 개념적 질서를 수정한다. 동시에 새로운 개념은 관찰에 의한 식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예시해준다.[30] 또한 동시적인 계기들 간의 '상호내재성'은 자신들의 특징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현재 속에 들어오는 미래의 내재와도 연결된다.[31]

---

28) *Iibd*., p.190.
29) *Iibd*., p.241.
30) *Iibd*., p.253.
31) *Iibd*., p.339.

> 철학은 독단의 오류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아왔다. 이 오류는 작업가설의 원리가 명석·판명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신념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철학은 이에 대한 반발로 인해, 그러한 방법을 포기하게 되는 또 다른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즉 지성이란 본질적으로 잘못된 허구와 결부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려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한 예가 바로, 니체와 베르그송의 반(反)주지주의이다.[32]

종교와 도덕의 얼룩진 역사는 과학의 보다 안정된 일반성을 위하여 종교와 도덕을 제쳐놓고자 하는 욕구가 널리 퍼지게 된 주요 요인이다. 우주를 평범한 사태들의 구현으로 보려는 이와 같은 독선적인 시도에는 안 된 일이지만, 미적, 종교적 도덕적 관념들의 충격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힘이 약화될 때 문명이 붕괴되고, 쇠퇴가 되는 것이다.[33] 이를 극복,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고 화이트헤드는 주장한다.

> 작은 합성물의 단위로부터 보다 큰 합성물의 단위로 나아감에 따라 우연으로부터 필연으로의 이행이 나타나게 된다. 한 예로 강의 속에 사용된 문장은 우연적 요소가 크다. 그러나 강의 전체는 강의자의 성격을 필연적으로 반영한다. 왜냐하면 그 강의는 강의자의 생애가 반영된 즉 사회적인 여러 환경으로부터 받아들인 요인들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환경은 시공간적인 체계를 통해 관측되는 질서에 의존하는데, 이 질서의 형식은 궁극적인 필연성을 띠고 있지 않지만 경험의 중요성을 위해서는 적절하게 안정된 질서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질서의

32) *Iibd*., p.349.
33) *Ibid*., p.34.

형식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배적인 질서 내에는 변화가 존재한다. 항상 새로운 형식의 질서로의 이행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지배적이면서도 부분적으로는 와해되고 있는 것이다. 즉 질서 역시 완결적이지 않으며, 와해 역시 완결적이지 않다. 새로운 형식의 질서로의 이행은 기존 질서의 와해를 포함하며 이는 참신성에 기인한 것이다.[34]

또한 화이트헤드는 역사의 진보적 전개과정에 방해가 되었던 부정적 사건 혹은 인물들의 의미를 재조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등급화는 과정 속에서 행하고 있는 문제의 세부사실과 조화될 수 없는 여건 내의 요소들을 배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런데 배제도 하나의 긍정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버려진 여건들로 이루어진 배경은 그 박동 전체에다 어떤 색조의 느낌을 던져준다. 역사를 이해하고자 하다면, 그것의 회피, 실패, 탈출의 경로를 알아야 한다.'[35]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사실들의 이행에 관심을 두는 과학은 결코 역사의 끊임없는 참신성을 예언할 수 없다고 보았다.[36]

이러한 입장의 근간은 합리주의에 있다. 화이트헤드는 '진정한 합리주의란 영감을 찾아 구체적인 것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언제나 자기를 초월하는 것이지 않으면 안 된다. 자족하는 합리주의란 사실상 일종의 반(反)합리주의인 것이다. 그것은 특정한 추상 관념들의 체계에 임의로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한다. 과학의 형태가 바로 이런 것'[37]이었다고 주장한다.

---

34) *Ibid*., p.123.
35) *Ibid*., p.127.
36) *Ibid*., p.146.
37) A. N. Whitehead. *Science and the Modern World*. New York: Macmillan Company, 1925. Vol. 55 of the Great Books of the Western World series.

문명사회의 미적 요구에 대해서 과학이 끼친 영향은 지금까지 불행스러운 것이었다. 과학의 유물주의적 기반은 가치에 대립되는 사물에만 주목하게끔 해왔다. 이 대립은 구체적인 지평에서 보자면 그릇된 것이다. 그러나 일상적인 사유의 추상적 지평에서 본다면 타당한 것이다. 이처럼 사물에만 주목하는 그릇된 관점이 경제학의 추상 관념들과 결합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들 추상 관념은 상업상의 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되는 추상관념이었다. 궁극적인 가치는 여기서 제외되었다.[38]

3. 구성적 포스트모더니즘의 과정철학 역사 이해

이제 우리는 이러한 창조성과 모험의 역사를 새롭게 정의내릴 필요가 있다. 화이트헤드의 우주론에 기반한 역사관은 기존의 역사 법칙주의와 역사개성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구성적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정의내리고자 한다. 그의 역사관은 역사의 상대성을 단순히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의 과정에서 합생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화이트헤드는, 역사에 있어서의 반복이 안정된 우주질서에 근거한다고 이해한다. 그리고 귀납추리와 예측명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주 질서이다. 그렇기에 자연의 제일성이 우리의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제일성의 산물이다. 물론 이 우주는 초역사적 동일성을 향유하지는 않는다. 이는 우주가 유일 필연의 것이 아니라 우연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

---

p.289.

38) A. N. Whitehead. *Modes of Thought*. New York: MacMillan Company, 1938. p.91.

다. 그러나 이 우주에는 급격한 변화가 불가능하다. 과거 전체가 현재와 미래를 향해 강력한 인과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존재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 우주시대에서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사용하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 우주 시대 내에서 귀납추리는 정당화되며 이렇게 정당화된 귀납추리는 예측명제를 합리화한다. 결국 화이트헤드에게 있어 예측명제의 합리성을 보장하는 것은 지금의 우주시대를 그리고 있는 우주론이다.[39]

더불어 화이트헤드는 역사의 상대성을 인간의 정신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화이트헤드가 자신의 우주론에서 일차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이 우주가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신념의 정합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은 상대주의적 귀결로 이를 수 있다. 왜냐하면 신념의 문제에는 귀납적 방법에 대한 신념뿐만 아니라, 인격적 동일성에 대한 신념, 정신과 신체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신념, 사실과 가치의 동일성에 대한 신념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주의를 피하려면 이러한 합리성에는 일정한 제약이 가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화이트헤드는 인간에게 가능한 다양한 유형으로 다양한 층차에서 확보되는 경험 전체를 그러한 제약자로서 제시한다. 즉 인간의 경험에서 충족된다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40]

물론 화이트헤드는 역사의 추상성과 모호성을 인정한다. 그래서 그는 우주를 현실적으로 조작 가능하고 예견가능하며 철두철미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인간이 지닌 허약한 통찰력, 관념의 추상성과 언어의 모호성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

39) 문창옥, 『화이트헤드 철학의 모험』, 통나무, 2002년, p.236.
40) *Ibid*., p.239.

다.[41] 그러나 그러한 한계 인식은 원리상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적 믿음과는 구별된다. 왜냐하면 그의 자연철학은 우리가 내적 외적 감각이나 특수과학의 이론들을 통해 경험하는 자연은 물론이요, 예술이나 종교에서 구현되는 가치 경험에 연관된 자연까지 포함하는 매우 넓은 영역의 것이기 때문이다.[42]

따라서 그는 전통 구성주의 철학을 해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자리에 새로운 범주와 개념들을 동원하여 체계를 구성하고, 이 체계를 통해 구성주의 철학이 남겨놓은 문제들을 해소 또는 해명했다는 점에서 해체적 포스트모더니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리핀은 화이트헤드의 철학을 구성적 포스트모더니즘으로 특징짓는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페드라자의 의견에 따라 화이트헤드가 외적 실재에 대응하는 검증 가능한 전제들의 체계가 아니라 주어진 문맥에서 경험을 해석할 수 있는 실용적 능력에 의해 그 성공여부가 평가되는 점진적인 실험적 해석 도식을 구축하고자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화이트헤드를 포스트모던의 잠재적 공헌자로 특징짓는다. 이 둘의 평가는 모두 옳은 것으로서 화이트헤드의 철학에서 구성과 해체는 별개의 요인이 아니며, 화이트헤드는 구성을 통해 해체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43]

그러나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유동성 때문에 그의 철학을 해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실재의 유동성이 해체의 메커니즘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개념 그 자체는 구성이나 해체와 관련하여 중립적이며, 화이트헤드 철학 내에

41) A. N.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corrected edition, ed. by David Ray Griffin & Donald W. Sherburne, The Free Press, 1978. p.65.
42) *Ibid*., p.247.
43) *Ibid*., pp.281-2.

서 명백히 구성적으로 해명되는 개념이다. 즉 그러한 유동성은 합리적 체계 내에서 다시 말해 주체가 갖는 결단과 선택은 주체적 지향에 의해 범주적으로 환원, 설명되고 있다. 더구나 자기 초월적 주체로서의 현실적 존재자는 분명 우연성을 갖는 것이지만, 이러한 유동성이 체계 밖에서 체계를 위협하는 외적 요인이 아니라 반대로 체계 내적 요인으로 등장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44] 결국 화이트헤드는 해체의 요인을 체계 속에 끌어들임으로써 구성 속에서 해체요인을 보여주고, 나아가 이 해체의 요인에 의해 생성하는 세계에 대한 그의 구성적 해명에 궁극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4. 결론

본 논문의 목적은 화이트헤드의 주요 저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의 역사철학 방향이 역사주의적인지 반역사주의적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그리고 그의 역사관이 창조적인 모험의 역사주의 즉 구성적 포스트모니즘 역사주의라고 이해하였다. 리셔의 표현을 빌자면 객관적 진리는 하나이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철학자들의 관점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 결과 출현하는 철학체계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도출[45]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정철학을 단순한 창조성의 역사주의 혹은 구성적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이해한다

44) *Ibid*., p.284~7.

45) Nicholas Rescher, *The Strife of Systems: An Essay on the Grounds and Implications of Philosophical Diversity*.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85, p.178.

면 상대주의적인 것을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화이트헤드는 과정의 원리에 해당하는 작용인과 유한성의 원리에 해당하는 목적인을 새로운 개별성의 원리를 통해 구성한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공공성에서 사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현실태의 목적인이라고 할 수 있고, 사사성에서 공공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현실태의 작용인이라고 할 수 있다. 화이트헤드 철학의 이러한 특징은 '관계'와 '가치' 혹은 '과정'과 '강도'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사물들 사이의 상호 관계, 주체와 대상의 상호 관계라는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대상의 힘에 의해 자기를 실현해 가기도 하며, 다른 주체의 대상으로 자기를 내어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 최종적인 관계는 어떤 욕구에 의해 어떤 가치를 파악하는 것은, 바로 자기 원인에 의해서 달라진다.

화이트헤드의 미적 가치의 방식은 "같음의 과잉"과 "다름의 과잉"이라는 근대와 포스트모더니즘을 조화하는 형식을 취한다. 동일성의 과잉에 대한 거부가 포스트모더니즘을 통해서 차이의 과잉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양자를 적절하게 조화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적 화두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가치의 증식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근대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유를 전개할 필요성을 마주하고 있다. 이때 우리는 하나의 대안으로 과정과 미적 가치를 결합하고 있는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사변철학에서 모든 현실태는 미적인 실현을 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근거로 인해서, 그는 "종래의 철학적 사고로부터 다소 벗어나는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46] 새로운 형이상학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

라서 화이트헤드는 자신의 새로운 형이상학에서 “관계적 힘”으로의 작용인과 “미적 가치”의 목적인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개체성을 통해 역사를 조망하고 있는 것이다.

46) A. N.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Macmillan. 1978. p.72.

참고문헌

Whitehead. A. N. *Process and Reality: An Essay in Cosmology*. New York : Macmillan Company, 1929.

_____. *Science and the Modern World*. New York : Macmillan Company, 1925.

_____. *Adventures of Ideas*. New York : Macmillan Company, 1933.

_____. *Modes of Thought*. New York : MacMillan Company, 1938.

_____. *Essays in Science and Philosophy*. London : Philosophical Library, 1947.

이현휘,「미국 혁명의 종교적 기원 (I) - 화이트헤드와 탈 근대 역사학의 새로운 지평」,『화이트헤드연구』11집, 한국화이트헤드학회, 2005.

주재완,「과정철학은 관점주의인가?: 레셔의 관점주의와 대비하여」,『화이트헤드연구』16집, 한국화이트헤드학회, 2008.

Allan, George. "Process Interpretations of History" in *Handbook of Whiteheadian Process Thought vol.1*. Edited by Michel Weber and Will Desmond. Heusenstamm, Germany: Ontos Verlag, 2008.

Cauthen, Kenneth. "Imaging the Future: New Visions and New Responsibilities" in *Zygon no.3*. 1985.

Cobb, John B., Jr. "Explanation and Causation in History and the Social Sciences" in *Process Philosophy and Social Thought*, eds. John B. Cobb, Jr. and Widick Schroeder. Center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981.

Hall, David L. "Culture, History, and the Retrieval of the Past" in *Process Studies 15*, 1986.

Johnson, A. H. "Whitehead's Philosophy of History" in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7, no.2*. 1946.

Ozaki, Makoto. "Nature and History" in *Process Thought. no.8*. 1998.

Rescher, Nicholas. "Trapped Within History?: A Process Philosophical Refutation of Historicist Relativism" in *Process Studies 29, no.1*. 2000.

Schinkel, Anders. “History and Historiography in Process” in *History and Theory 43*, 2004.

Vanheeswijck, Guido. “R. G. Collingwood and A. N. Whitehead on Metaphysics, History, and Cosmology." in *Process Studies 27, no.3~4*. 1998.

Zimmerman, Dean W. “Indivisible Parts and Extended Objects: Some Philosophical Episodes from Topology’s Prehistory.” in *The Monist, no.79*. 1996.

[Abstract]

The historical View of Whitehead's Process-Philosophy

Chung, Youn-Seung (Chung-nam national Univ.)

This paper focuses on the historical View of A. N. Whitehead. His view can be defined as the historicism of creative adventure, that is historicism of constructive postmodernism.

The process-philosophy of Whitehead can be characterized by ‘relation', ‘value’, ‘process', ‘intensity’. These aesthetic value has the form of postmodernism - ‘the harmony of difference and identity'.

In these new metaphysical system, he takes a view of history through the realization of the efficient cause as ‘relative power' and a final cause of ‘aesthetic value'.

Key-words: Historical view of Whitehead, The process philosophy, Historicism, Anti historicism.

접 수 일 : 2013년 11월 10일
심사기간 : 2013년 11월 15일 ~ 18일
게재확정일 : 2013년 11월 30일